

순천시 내년도 105개 사업 국도비 3980억원 필요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신규 58건·계속사업 47건 원도심에 실감 콘텐츠 허브 센터·웹툰·애니메이션 거리 조성

순천시가 내년 필요한 국고 예산을 집계한 결과 최소 39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최근 노관규 시장 주재로 내년도 국도비 지원 예산의 확보와 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외부 재원 확보 체제에 들어갔다.

보고회는 주요 시책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05건, 국도비 3980억원(총사업비 2조 8615억원)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58건에 대한 예산 864억원이 필요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속하는 '계속 사업'은 47건에 3116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60억원 ▲실감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허브 구축 100억원 ▲원도심 콘텐츠 테마타운 조성 8억원 ▲확장현실(XR) 융합南海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65억원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성 인증 지원센터 구축 33억원 ▲여자인 깃털습지정원(해양정원) 조성 사업 70억원 등이다.

순천시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 100명의 인재를 키우는 신기술콘텐츠융복합 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50여명의 콘텐츠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도 이뤄진다. 오는

2027년까지는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실감 콘텐츠 핵심기술 집적지(실감 콘텐츠 혁신 허브 센터)를 원도심에 조성한다. 이곳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공유센터와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순천 원도심으로 꼽히는 중앙동·향동 일원에 '원도심 콘텐츠 테마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이 일대 빈 점포는 198개에 달할 정도로 원도심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K-디즈니'를 내건 순천시는 원도심에 웹툰·애니메이션 거리를 만들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확장현실(XR) 융합南海안 관광벨트'는南海안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와 협업체南海안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XR·홀로그램 기술로 재현하는 사업이다.南海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는 전남의 여수, 광양, 고흥, 보성과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南海안 중심지역의 시·군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또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운영한 공영 개인 이동수단(PM)을 2286명이 이용한 경험을 살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성을 관리하고 인증·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특히 올해 K-디즈니 순천 등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국도비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 사업 보완, 추가 신규사업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인재 순천시 예산실 재정협력팀장은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순서와 기간보다 한걸음 빠르게 소관 부처·국회 등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빈집 2605동 선별 11월까지 실태조사 추진

여수시가 빈집 2605동을 선별하고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여수시는 전기·상수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을 기반으로 2605동의 빈집을 1차 선별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해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미분양, 미입주, 임시거주, 공공 임대 주택 등의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 관리현황, 방치 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활용 의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주요 구조부상태와 위생 등에 따라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들 자료는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돼 정기적으로 관리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이 배포된 만큼 체계적인 빈집실태 조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실태조사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소상공인 40곳 디지털 기기 도입 지원

고흥군이 올해 소상공인 40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도입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전남도 '2024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신청을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주문 증가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비중으로 나뉜다.

지난해는 자부담 제외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27곳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고흥지역에서는 올해 4000만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다.

고흥군은 디지털 기기 외에도 디지털 기기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경제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 수촌마을 '돌담숲길 주민 활동 전시회'

24일~3월 6일까지 보성아트홀

보성군 조성면 수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소중한 일상을 담은 전시회를 연다.

보성군은 수촌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돌담숲길 마을 주민활동·문화교실 작품 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3월6일까지 울포해수욕장 해수욕센터의 보성아트홀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주광중 이장을 필두로 한 수촌마을 주민들은 집마다 문패를 달고 돌담숲길에 벽화를 선보이는 등 서로 힘을 모아 살고 있다.

전시에서는 문화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시화 20점을 만날 수 있다.

주민들이 만든 종이 공예와 등 공예 작품도 전시된다.

마을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만든 포스터 15점도 걸린다. 주민들은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서 생김 플라스틱 바구니를 전시용 액자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마을 고령 주민 10명은 김용국 강사의 한글 문해교육을 받았다.

올해 83세인 손귀녀씨의 '나는 글도 잘 모르는데/ 시를 어떻게 써?/ 반가운 사람들 모여서/ 웃음꽃 피운 것이/ 시아니여?'라고 쓰인 '시가 머시여'라는 시가 눈에 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제2기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최근 발대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2명 발대식

구례군 여성친화정책을 제안할 '군민참여단' 22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구례군은 최근 군청에서 구례군 2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2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2명이 참석했다. 김 군수는 이날 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군민참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여성친화정책을 홍보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생활 속 여성의 불편 사항도 살펴본다.

군민참여단은 지역 안전 증진 분과, 교육 돌봄 분과, 정책홍보 분과로 나뉘어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과 행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오는 22일 광양시 옥룡면 약수제단에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백운산 고로쇠 풍년 기원합니다

광양시 내일 동곡리서 약수제 민요 공연·합수제·약수 제례

광양시가 22일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개최한다.

올해 41회를 맞이하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광양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다.

약수제는 광양시립국악단의 민요·제례악 공연, 12개 읍면동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합수제,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참여하는 약수제례, 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제례는 광양향교(전교 안영춘)의 주관 아래 헌작, 축문 등 기본 제례 형식에 시립국악

단 전문 제례악을 가미해 제례의 품격과 예술성을 강화하고, 고로쇠 약수가 풍족히 채취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할 예정이다.

고로쇠는 예로부터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骨利水)'로 불리며 마그네슘과 칼슘, 천연미네랄 성분 함유로 관절염과 위장병,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맑고 깨끗하며 단맛이 좋아 전국 최고 품질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산림청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오는 3월31일까지 판매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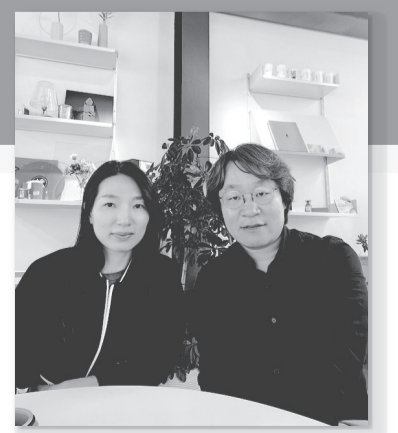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